

강진군, 딸기 원묘 생산 후 농가에 분양 시작

강진군이 자체 생산한 딸기 원묘를 농업인에게 분양한다.

딸기는 종자번식이 아니라 영양번식을 하는 작물로 여름철 어미묘에서 어린묘를 받아 가을에 심는 방법으로 모종을 준비한다. 이때 어미묘는 바이러스나 질병이 없는 무병묘를 준비하는 것이 딸기 다수확과 품질향상에 중요하다.

강진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6일부터 조직배양묘에서 유래한 모종인 원묘를 증식해 딸기농가에 분양하고 있다. 원묘는 유리온실 실증포장에서 최대한 병이 없는 상태로 키워 가을에 딸기농업인들에게 분양, 다음해 모종키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준비한 모종은 여름철 폭염에도 병이 없도록 철저히 방제하여 현재까지 약 2,000개 정도를 만들었다.

현재 딸기 육묘농가를 대상으로 분양중에 있으며 한 농가당 100주

씩 주당 700원에 판매 분양하고 분양대금은 군에 세입처리할 계획이다.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김순옥 소장은 “딸기는 좋은 모종만들기에 성공하지 못하면 안정적인 영농이 불가능한 만큼 농업인들이 좋은 모종을 제때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원묘 분양은 농가의 우량 모종 확보를 돕고 안정적인 딸기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병해충 발생을 줄이고 건강한 모종을 확보함으로써 농가의 재배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기술센터는 분양 이후에도 농가별 생육 상태와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살피며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딸기 재배 농가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육묘 관리 요령과 병해충 예방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전운재 기자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이 자체 생산한 딸기 원묘를 농가에 분양하기 위해 살펴보고 있다.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목포시보건소, 생물테러 대응 훈련 실시



목포시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생물테러 대응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목포 시청 제공

목포시보건소는 지난 8일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컨벤션홀에서 보건·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함께 ‘2026년 생물테러 대응 소규모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목포시보건소와 목포경찰서, 목포소방서, 타 시·군 생물테러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여해 생물테러 발생 시 기관별 역할과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주요 내용은 ▲생물테러 대응 이론교육 ▲개인보호구 착용·탈의 시연

▲다중탐지키트 사용법 ▲검체 수송 절차 등으로, 참여자들은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였다.

목포시 관계자는 “생물테러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훈련과 유관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성태 기자

함평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함평군 선정 촉구

함평군의회(의장 김영인)가 10월 13일 함평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함평군 선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의회 차원의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함평군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뜻을 모으기 위

해 마련됐다. 정부는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17개 군에서 18개 군 내외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며, 국비 지원 비율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 선

순환을 통해 침체된 농어촌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평군의회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 선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문수 기자

영암군, 고향 빛낸 서창완·박소영 선수 초청 격려

영암군은 지난 12일 고향을 빛낸 서창완 근대5종 선수와 박소영 장애인 역도 선수를 초청해 대회 성과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영암읍 교동리 출신 서창완 선수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근대5종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국제대회에서도 꾸준히 활약하고 있다. 금정면 기동마을

출신 박소영 선수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역도에서 은메달과 동메달 등 총 3개의 메달을 획득하고, 전남 장애인체육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우승희 군수는 두 선수의 노력과 성과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 출신 체육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응원하

겠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이번 만남을 통해 지역 체육인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지역 출신 선수들을 발굴하고 지원해 영암의 위상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김기철 기자

무안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13일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산 무안군수를 비롯해 고성석·이정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양영복 무안군의회의장과 군의원, 주요 기관·사회단체장, 김천성 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장과 노인회 임원, 경로당 회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노인강령 낭독, 유공자 표창, 김천성 지회장의 기념사, 김산 군수와 양영복 부의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서삼석 국회의원의 축전도 전달됐다.

특히 이날 표창식에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모범노인과 노인복지 유공자 27명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무안군수,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전남연합회장, 무안군지회장 표창을 받았다.

/서용운 기자

신안, 정혜정 부군수 취임...첫 여성 부군수

신안군은 지난 7일 제34대 부군수로 정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희망과장이 부임했다고 밝혔다.

광양 출신인 정 부군수는 1992년 공직에 입문해 청년희망과장, 법무담당관, 장애인복지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신안군 분군 이후 최초의 여성 부군수로 취임했다.

신안군은 여성 간부공무원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여성 인재 발탁과 균형인사를 통해 조직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이번 인사를 추진했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여성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군수는 “최초의 여성 부군수로서 새로운 시각과 소통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신안을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태 기자

